

가톨릭고등학교 종교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실천

이 미 선* · 김 경 이**

이화여자대학교 · 가톨릭대학교

〈요 약〉

학교의 교육이념과 교육목표는 교육과정을 통해 구현되고, 가톨릭학교 종교교육과정은 학교 정체성을 구현하는 특징을 지닌다. 하지만 국가 교육과정에서 종교 교과와 성격은 종교학 교과이며, 주요 목표는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문화 이해이다. 본 연구는 가톨릭학교 종교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실천에 대한 조사연구로써 종교교사들이 위의 두 가지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종교교사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마다 1명의 교사가 종교 교과를 담당하는 상황에서,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종교교사를 지원하는 방안 탐색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톨릭고등학교 종교교사들은 종교교육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둘째, 가톨릭고등학교 종교교육 실천에서 교사들이 주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인가? 셋째, 가톨릭고등학교 종교교사들이 종교교육 실천에서 경험하는 갈등은 무엇인가? 연구는 문헌 분석과 교사 대상 심층면담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교사들은 종교교육을 종교적 심성을 일깨우는 교육, 가톨릭의 전통과 장점이 구현되는 교육, 종교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기르고 참 종교를 식별하는 교육, 종교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교육, 인성교육, 비교과 영역인 종교행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 교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가톨릭 고등학교 종교교육 실천에서 역점을 두는 사항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이웃 종교에 대한 존중이었다. 셋째, 종교교육 실천에서 교사들이 경험하는 갈등은 종교교육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이해 부족, 종교교육 실제와 가톨릭 교육 이념 구현 간의 간극, 교회의 지원과 관심 부족, 종교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적절한 교재의 미흡함 등을 들고 있다. 갈등과 도전이 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들은 주로 개별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학습공동체 활동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었다.

핵심주제어: 가톨릭학교교육, 가톨릭학교 종교교육, 2015 종교과정, 종교교육 인식, 종교교육 실천

* 제1저자

** 교신저자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톨릭학교는 신앙과 교양과 삶을 조화롭게 일치시키는 학문 활동을 하는 교회적 주체이다.¹⁾ 가톨릭학교의 사명은 가톨릭 교회와 동일한데 그것은 “세상의 복음화”²⁾이다. 복음화의 대상에 세상의 모든 이를 포함하듯 가톨릭학교교육은 가톨릭 신자만이 아닌 모든 이들을 포함한다. “가톨릭학교는 그리스도교 원리에 근거한 고유의 교육 계획에 동참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³⁾있기 때문이다. 가톨릭학교는 현대 사회의 제도로서 학교라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 가톨릭 교회 문헌에도 가톨릭학교가 학교라는 사회제도로써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가톨릭학교라 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⁴⁾ 또한 국가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립학교로서의 가톨릭학교는 학교의 고유한 교육이념을 구현함과 동시에 국가가 제시하는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학교급과 개별 교과목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교과목을 개설하고, 규정에 따라 학생을 선발한다.

이에 한국의 가톨릭학교에 대한 역할기대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가톨릭 교회가 갖는 기대이고, 다른 하나는 사립 학교교육 기관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역할기대이다. 이중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톨릭학교는 “가톨릭학교를 가톨릭학교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학생들의 다양한 종교적 배경, 표준화된 국가 교육과정 적용, 대학 입시 준비 등의 교육적 요구들은 가톨릭학교에 대해 언제나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응답을 요구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가해지는 제재들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가톨릭학교 정체성 구현과 관련한 요구는 법률적 강제력을 갖지 않은 영역이고, 학교 구성원의 신원(身元)에 따라 교육 정체성 구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정도도 다르다.

그렇다면 가톨릭학교는 “가톨릭학교를 가톨릭학교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해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는가? 가톨릭 교회의 신앙고백적 언어로 답하자면 가톨릭 학교를 가톨릭학교답게 만드는 것은 교육의 토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다. 이를 일반적인 교육의 언어로 답하자면 교육내용과 정서적·물리적 환경이 가톨릭학교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데 작용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학교라는 사회적 기구가 교사와 교육과정을 통해 학교교육 이념과 특징을 드러내듯, 가톨릭학교

1)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학교 종교교육에 관하여 주교회의의장들에게 보내는 회람』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9), 9항.

2)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교육위원회, 『한국 가톨릭학교 교육 현장』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0).

3) 『학교 종교교육에 관하여 주교회의의장들에게 보내는 회람』, 9항.

4)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학교 내의 가톨릭 평신도: 신앙의 증인들』(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2), 13항.

도 교사와 교육과정을 통해 가톨릭교육의 정체성을 드러낸다.⁵⁾

특히 가톨릭학교 교육과정 가운데 종교교육은 가톨릭학교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톨릭학교의 종교교육은 학생들에게 그리스도교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인 생활에 관한 지식을 전수한다.”⁶⁾ “종교교육은 가톨릭학교로 하여금 학교의 정체성에 충실하고, 세상과 인간을 향한 자신의 사명을 다하도록 도움으로써 가톨릭학교의 사명 완수를 돕는다.” 종교교육에 대한 이와 같은 교회문헌⁷⁾의 언급은 종교교육이야말로 교육과정 가운데 가톨릭학교 교육의 특징을 뚜렷하게 반영하는 교육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문헌에서는 가톨릭학교 종교교육의 성격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한국의 가톨릭학교 종교교육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적용해야 하므로 교회가 제시하는 종교교육의 성격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허용되지 않은 종립 학교의 경우, 종교 과목을 개설 할 때 복수의 교과목을 개설하여 학생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하므로 가톨릭학교라 하더라도 종교 교과 개설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⁸⁾ 그래서 철학이나 다른 교양 과목에서 종교적인 교육으로 종교교육을 운영하기도 한다.⁹⁾ 종교 교과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교과목은 교양교육으로서 종교학이며 과목의 성격은 “종교와 연관된 지식, 경험, 생활 등에 관해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안목과 태도를 기르기 위한 과목”¹⁰⁾으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종교 교육과정에 대한 상충하는 기대로 인해 가톨릭학교 종교교사들은 교육과정 해석과 운영에서 역할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종교교육 전문가로서의 교육적 구상¹¹⁾을 더 많이 요청받게 된다. 즉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기 위해서 종교교육에서 두 개의 역할 기대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이와 관련한 교사의 전문적 구상¹²⁾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가톨릭학교의 종교교육이 교사들에 의해서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

5)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그리스도인 교육에 관한 선언』(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8항.

6)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가톨릭학교의 문화 간 대화 교육: 사랑의 문명을 위한 조화로운 삶』(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3), 74항.

7) 가톨릭학교교육에 대한 교회문헌은 가톨릭학교에 대한 지침서 역할을 한다. 가톨릭신학을 토대로 가톨릭교육의 가치와 구현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교육이 실행되는 지역 교회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톨릭학교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활동의 토대를 교회문헌에서 찾는다.

8) 종교교육이 정규 교과시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그 과목명은 매우 다양하다. 종교학으로 운영하는 학교 2개교, 종교로 운영하는 학교 5개교, 철학으로 운영하는 학교 18개교, 생활과 인성으로 운영하는 학교 6개교, 그 외에도 ‘종교철학’, ‘종교와 철학’, ‘생활과 철학’, ‘인성’,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조영관, 「2015 개정 종교학 교육과정과 가톨릭 중등학교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제51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6). 102-128쪽

9) 조영관, 위의 글.

10) 교육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19] 2015, 58쪽.

11) 오육환, 『교사 전문성』(서울: 교육과학사, 2005), 53쪽.

12) 전문적 구상이야말로 교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활동이라고 한다. (오육환, 위의 글, 53쪽)

는지에 대한 탐색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계획된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실천 사이에 어떤 일치와 차이가 있는지, 종교 교육과정 실천에서 교사들의 어려움은 무엇인지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는 가톨릭학교 종교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구상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종교를 담당하는 교사는 한 명이다. 따라서 이들의 전문성을 신장하는 데 교육과정 운영의 실천적 지식을 공유하는 학습공동체의 필요성이 더 많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결과가 종교교사 학습공동체에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수행하였다.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가톨릭고등학교 종교교사들은 종교교육에 대해 어떻게 인식 및 실천하고 있는가?
- 둘째, 가톨릭고등학교 종교교육 실천에서 교사들이 고려하고 있는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
- 셋째, 가톨릭고등학교 종교교사들이 종교교육 실천에서 경험하는 갈등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

가톨릭학교 종교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문헌연구와 현황 파악을 위해 설문지를 활용한 양적 연구로 수행되었다.¹³⁾ 하지만 본 연구는 심층면담을 통한 사례 분석의 방법으로 종교교사들의 인식과 실천을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하고자 했다. 면담은 종교교육에 대하여 피면담자와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반구조화된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반구조화된 면담은 연구자가 만든 면담 가이드로 진행하되 면담자가 취할 수 있는 면담상의 유연성과 융통성을 배제한 면담 형식으로 면담자가 미리 준비한 일련의 구조화되고 조직화된 질문을 한 다음 좀 더 풍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피면담자의 반응을 이끌어 내는 방법이다.¹⁴⁾ 면담 대상자는 학교의 특성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학생들의 학교 선택에 따른 입학 경로는 종교 교과 운영의 성격과 범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하여 입

13) 가톨릭학교 종교교육에 관한 연구들 중 양적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율옥·김경이, 「가톨릭학교 종교교육현황 조사」 『사목』제318호 (서울: 천주교중앙협의회, 2005); 김경이, 『함께하는 가톨릭학교 종교교육』 (서울: 가톨릭학교교육포럼, 2005); 조영관, 앞의 글. 또한 가톨릭 학교나 종교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안병초, 「가톨릭학교 운영의 현황과 문제 및 미래전망」 『사목』 제 223호 (서울: 천주교중앙협의회, 1997); 안병초, 「가톨릭학교의 가톨릭적 정체성」 『사목』제260호 (서울: 천주교중앙협의회, 2005); 최준규, 「가톨릭학교의 종교교육 그 목적과 개념」 『사목』제318호 (서울: 천주교중앙협의회, 2005); 구본만, 「가톨릭학교 전인교육 사명에 대한 고찰」 『가톨릭철학』제17호 (서울: 한국가톨릭철학회, 2011); 구본만, 「가톨릭학교에 관한 지침에 나타난 가톨릭 학교 사명의 실천적 구현」 『가톨릭신학』 제15호 (서울: 한국가톨릭신학학회, 2009); 성기선, 「제7차 교육과정과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제13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이용훈, 「다종교 상황에서 가톨릭학교의 종교교육」 『사목』제318호 (서울: 천주교중앙협의회, 2005); 최영희, 「종립학교, 종교교육의 방향(종교교재의 분석과 평가)」 『종교교육학연구』제32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6); 김경이, 「다문화사회와 가톨릭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제36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1) 등으로 대부분의 연구가 문헌연구 중심이다.

14)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I (제3판)』, 아카데미프레스, 2016, 297쪽.

학하는 학교 2개교, 학생들이 학교를 배정받아 입학하는 학교 3개교의 종교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특징은 <표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들의 특징

이름	학생의 입학경로	교과목 명	경력
교사1	학교 선택에 따른 입학	철학	8년
교사2	학교 선택에 따른 입학	종교	3년
교사3	배정에 따른 입학	종교/교육학	3년(중학교 2년포함)
교사4	배정에 따른 입학	종교+인성	10년
교사5	배정에 따른 입학	인성	8년(중학교 3년포함)

심층면담에서 질문은 종교교사의 경험과 이해를 이끌어 내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면담에서 활용한 반구조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선생님께서 인식하는 종교교육의 성격과 범위는 무엇입니까?”, “선생님께서 종교교육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선생님께서 2015 교육과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학이라는 교과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톨릭 교회가 기대하는 종교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역할 갈등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인 역할 갈등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가톨릭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을 실행함에 있어 주의를 기울이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연구자가 준비한 질문을 중심으로 피면담자의 답변과 구체적인 사례 등에 대해 답하고, 면담과정에서 답변 내용을 명료화 하고 구체화하기 위하여 하부 질문들을 병행하였다.

면담의 전 과정은 피면담자의 동의를 얻어 녹취 하였고, 귀납적 분석을 통한 주제화 코딩방법을 사용하여 내용을 분석 정리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면담내용을 전사하고, 코딩을 위해 일차적으로 전사내용 전체를 읽으며 전반적 내용을 이해한 후 세그멘팅 작업을 거쳤다. 세그멘팅 한 자료들 중에서 반복적인 내용의 유형과 내용을 찾아 1차 초기코딩 작업을 하였고, 여기에서 자료의 내용을 몇 가지 주제로 정리하였다. 2차 코딩 작업에서는 핵심적이고 통합적인 내용들을 묶어 주제별로 범주화하는 작업을 하고, 마지막으로 코딩된 핵심내용들을 보다 잘 나타낼 수 있는 주제어로 변환하는 작업을 거쳤다.

II. 이론적 배경

1. 학교 종교교육의 위치

1) 종교교육의 성격과 범위

종교교육의 성격은 교육 주체 및 대상, 그리고 교육 목적에 따라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되고 있다. 첫째, 종교에 관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이 있음을 전제로 종교 일반에 대해 학습하는 종교학 또는 종교에 관한 교육이다. 둘째, 종립학교에서 학생의 종교적 정체성 형성에 관심을 갖고 이를 체현해 나가는 교육을 의미하는 종교적인 교육이다. 셋째, 특정 종교의 가르침과 전통을 고수하는 교리교육을 하는 종교의 교육이다.¹⁵⁾

구더햄(Gooderham)과 그리미트(Grimitte)의 종교수업 모형 구분은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구더햄은 종교수업 모형을 네 가지로 구분하는 데 첫째, 종교적-고백적 접근은 전통적으로 강조되어온 특정 종교, 특히 그리스도교의 성경과 전통을 중시하면서 그 토대 위에 새로운 신앙 고백을 지향하는 입장이다. 둘째, 종교적-학문적 접근은 특정 종교인 그리스도교/성경에 관심을 두면서 그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를 강조한다. 셋째, 고백적-인본주의적 접근은 특정 종교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일반적인 종교·종교경험에 초점을 두고 학습자의 실존주의적 태도 및 경험주의적인 연구방법을 강조한다. 넷째, 학문적-인본주의적 접근은 그리스도교를 일반 종교의 하나로 간주하면서 종합학문적인 연구를 강조한다.¹⁶⁾

그리미트의 종교수업 모형은 첫째, 신앙고백적(교리적)접근으로 이는 성경과 교리의 내용과 같은 종교적 지식을 전수하는 데 관심을 두는 접근이다. 둘째, 신-신앙고백적(신교리적)접근은 신앙고백적 교육을 보완하는 접근으로써 학습자의 능력, 필요, 욕구, 흥미 등을 고려하는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접근이다. 셋째, 개인적 문제탐구 접근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문제들을 중심으로 탐구하며, 문제의 제기,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평가, 판단을 적용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 접근은 개인적인 삶의 문제로부터 출발한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종교적 전통과의 만남과 해석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이 있다. 넷째, 현상학적(비교리적)접근은 종교에 대한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접근으로써 종교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경외감, 궁극적인 관심 등 종교의 내적인 요소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한다는 지

15) 고병철, 「한국종교교육의 정황과 방향: 종립고등학교의 경우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제 21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5), 109-139쪽; 조영관, 앞의 글, 105쪽; 김경이, 「다문화사회와 가톨릭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제36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1), 54쪽; 최준규, 「가톨릭학교의 종교교육: 생점, 개념, 목적, 방법」 『종교교육학연구』제21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5), 313쪽.

16) 김경이, 「학교종교수업,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송순재 엮음, 『왜기독교학교인가?』(서울: 기독한교, 2014), 285쪽; 손원영, 「영국에서의 학교 종교교육에 대한 연구」 『기독교교육정보』제14집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2006), 211-232쪽.

적을 받는다. 다섯째, 통합적 접근은 위의 네 가지 접근이 실존적 차원과 세계 종교적 차원에서 볼 때, 어느 한 측면만을 강조한다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통합적인 방법을 제안한다.¹⁷⁾

한편 가톨릭 종교교육학자 토마스 그룹은 종교교육에서 종교에 관해(about) 교육하는 객관적인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 즉 어떤 특정한 관점 없이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접근하는 것은 오류이자 신화라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종교교육이란 종교로부터(from) 배우는 것이거나, 종교인이 되도록(become) 하는 교육¹⁸⁾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교로부터 배우는 것은 배움의 대상이 되는 종교가 갖는 영적 지혜를 배우는 뜻이다.

2015 종교학 교육과정에 구더햄의 모형을 적용하면 학문적-인본주의적 모델을 표방하는 것이고, 그리미트의 모형을 적용하면 현상학적 접근을 적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룹의 지적과 같이 과연 종교를 특정한 관점과 입장 없이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든다. “나는 종교가 없다”고 하는 것이 “종교에 대한 관점이 없다”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종교가 없다”고 할 때 그 이유는 다양하다. 종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거나,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삶과 무관하다고 여기거나, 종교 그 자체를 회피 혹은 배척하거나, 초월적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등 다양한 입장이 있다고 본다. 어떤 범주에 속하든 그 자체가 종교에 대한 관점과 입장이라고 본다. 따라서 특정 종교의 입장을 취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종교에 대한 관점이자 입장이라고 본다.

2) 2015 교육과정에서 종교교육의 위치

2015 교육과정에서 종교 교과는 종교에 관한 교육 즉 종교학 교육이다. 종교학은 종립 학교의 정체성 및 설립이념의 핵심이 되는 종교교육이 아닌 가치중립적 입장에서 종교에 대한 객관적 지식과 스스로 사고하고 실천을 중시하는 종교학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교양 교육으로서 종교학 교육을 추구한다. 2015 종교학 교육과정은 “다종교·다문화 사회에서 종교에 관한 성찰적 안목과 태도를 기르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종교 문화 이해력, 비판적 성찰 능력, 의사소통 능력, 다문화 감수성, 윤리적·사회적 실천 능력 등의 역량 배양”¹⁹⁾에 초점을 둔다. 교육과정에서는 시대적·사회적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종교학으로서의 종교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이다. 종교간, 그리고 종교와 다른 영역의 소통 가능성 제고라는 구도를 토대로 학습자 중심의 성찰적 종교교육의 방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²⁰⁾ 성찰적 안목과 태도라는 목표는 교수학습과정에서 학습자를 수동적으로

17) 김경이, 「학교종교수업,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283-284쪽.

18) 토마스 그룹, Will There Be Faith?: A new vision for educating and growing disciples, 조영관·김경이·임숙희 옮김, 『신앙은 지속될 수 있을까?』(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4), 140쪽.

19) 교육부, 앞의 글, 58쪽.

20) 고병철, 「국가 교육과정(종교학)의 개념 흐름과 2015 종교학 교육과정」 『종교교육학연구』제51권 (서

남겨두지 않고, 스스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자각하는 교육을 통해 길러진다. 즉 종교 현상을 다양한 시각으로 스스로 깊이 사유하고 판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을 강조한다.

국가 수준의 종교학 교육과정은 종교적 교육이나 종교의 교육이 아닌 종교에 관한 교육으로서 그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종립학교의 교육이념 구현을 위한 교육과정으로서 기능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성격의 과목을 담당하는 종교교사들은 크게 두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데 하나는 그들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내용의 범위와 관련되는 어려움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종립학교 종교교사들은 수도자 혹은 성직자로서 이들은 자신이 속한 종교 전통을 토대로 교육하는 것을 희망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신앙을 학생들에게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속한 종교 전통 안에서의 신념, 가치, 의식을 형성하는 교육이야 말로 무엇보다도 좋은 교육이라는 믿음을 토대로 교육에 임하고 있기 때문이다.²¹⁾ 그리고 현실적으로 세계 종교를 비롯하여 종교학에서 다루는 내용의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이를 교육과정 안에서 다루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학교 종교교육은 여전히 종교교육에 대한 개념과 실천에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학교 종교교육에 대한 두 가지 쟁점

한국의 학교 종교교육에서 제기되고 있는 논쟁들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범주화 할 수 있다. 첫째 학교 종교교육은 특정 종교를 배경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종교문화에 접근하고 종교에 대한 이해력을 길러 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논의이다. 이 논의에서는 학교 종교교육이 종립학교의 입장에서 전개되면서 학생들의 종교 자유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개연성에 대해 말한다. 이 입장에서는 학교 종교교육에서 국가가 제시한 교육과정을 엄격하게 실천할 것을 요구한다. 달리 말하면 종교교육의 성격을 종립학교의 정체성을 위한 종교교육으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논의는 개별 학생의 종교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전개되는 종교교육 실제 사례가 제기 될 때 사회적 이슈가 되곤 한다.²²⁾ 그런데 종교의 자유와 관련한 헌법 조항²³⁾을 근거로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별 학생의 종교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학습자에게 강압

출: 한국종교교육학회, 2016), 20쪽.

21) 김정이, 「학교종교수업,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281쪽.

22)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2004년 서울의 한 종립학교에서 일어난 학생의 학내 종교자유 시위와 법정 소송을 들 수 있다.

23)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적으로 시행되는 종교교육은 종교적이지도 교육적이지도 않다.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배제된 상황에서 주침 배정으로 입학했는데 종교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고 게다가 거부감까지 갖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학생들은 이를 종교 자유권 침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업 중에 학생의 종교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타종교에 대해 배타적인 입장으로 종교 교과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은 강압적 교육이라고 생각 할 수 있는 것이다.

특정 종교만이 참되다고 하며 타종교를 배제하는 경우, 타종교 혹은 종교가 없는 학생들에게 학교 종교행사 참여의 정당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한다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저항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학교의 종교교육이 공적인 영역에서 보편적이고 평등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종립학교에서의 학교의 건학이념과 정체성에 따른 종교교육과의 갈등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영역은 종립학교의 입장이 반영된 종교 교육과정을 제도적으로 보장 해 달라는 관점이다. 이는 개별 학교의 교육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종교교육과정 정책이 개편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현행 종교교육과정 정책을 비판하면서 현 정책은 종립학교로 하여금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과 분리된 종교교육을 하도록 강제한다고 본다.²⁴⁾ “종교교육의 성격이 3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종립학교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공공성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종파교육에서 명백히 종교학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교육과정에서는 종립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 복수 과목 편성을 요구하고 있으니 이는 종립학교에 대한 지나친 규제”²⁵⁾라고 보는 것이다. 가톨릭은 종교교육을 통한 타종교에 대한 존중과 종교 간의 대화를 장려하고 있지만,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과 분리되지 않는 한” 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종교교육 정책은 이를 제한한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종립학교의 입장이 배제된 정책은 결과적으로 종립학교 종교교육으로 하여금 교육과정 운영에 제도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그리고 이는 공식적인 교육과정과 실천되는 교육과정에 차이를 가져오게 한다.

2. 가톨릭학교 종교교육의 성격과 범위

가톨릭학교는 다른 공·사립학교들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학업신장과 지적 능력 계발, 문화유산 전수, 그리고 전인적 성장 추구를 중요한 교육적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다.²⁶⁾ 뿐만 아니라 가톨릭학교는 일반 학교로서 갖는 특징과 함께, 가톨릭 교회에서 설립·운영하는 학교로서 복음화를 통한 전인적 인간형성²⁷⁾이라는 또 하나의 고유한 교육 이념과 사

24) 조영관, 앞의 글, 119쪽.

25) 같은 글.

26) 『가톨릭학교에 관한 지침』, 26항.

27) 『한국 가톨릭학교 교육 현장』1.2에서 “가톨릭학교의 사명은 복음화와 전인교육에 공헌하는 것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명을 가지고 있다.

가톨릭학교가 가지는 교회적 차원은 “단순한 보조적 성격”이 아니라, “고유하고 특수한 본성”이며, “가톨릭학교의 정체성을 이루는 근본요소”가 된다.²⁸⁾ 이러한 점은 종교교육이 가톨릭학교의 사명을 구현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즉, 종교교육은 가톨릭학교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을 충실히 수행하고 또 세상과 인간을 향한 자신의 사명을 다하도록 돕는 교육임을 의미한다.

1) 가톨릭학교 종교교육의 성격과 범위

가톨릭학교는 복음화를 통한 전인적 인간형성라는 고유한 교육 이념과 사명을 가진다. 가톨릭 교회에서 복음화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며,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내적 삶의 변화를 통해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더욱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을 말한다.²⁹⁾ 가톨릭학교는 복음화 사명 수행에 효과적인 접근으로 간주된다. 즉, 사회 문화적 측면을 고려할 때 복음화의 가장 유용한 수단이자 전인적 인간형성을 도모하는 기관³⁰⁾인 것이다. 전인적 인간형성이란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본질적 요소들인 신체적·지적·정리적·영적인 면들이 균형있게 성장하도록 돕는 과정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가톨릭 학교는 그리스도교 원리에 근거한 고유한 교육계획에 동참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³¹⁾

복음화 차원에서, 가톨릭학교 종교교육의 교육대상을 분류해 보면, 세례를 받은 가톨릭 신자 학생과 비신자 학생 그리고 타종교에 속한 학생들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그리스도인 교육』²항에서 그리스도인 교육은 “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신비를 깨닫도록 단계적으로 인도”한다. 이 문헌에서 교육은 신자 학생들이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자기가 간직하고 있는 희망에 대한 실천적 삶을 보여주는 세상의 복음화에 이바지하는 삶의 내면화를 길러 주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1977년 발표된 『가톨릭학교에 관한 지침』³²⁾에서는 교육의 대상으로 비신자 학생과 타종교에 속한 학생들을 포함한다.³²⁾ 즉 가톨릭학교는 비그리스도교 신자를 포함해서 모든 이에게 학교교육을 개방한다. 가톨릭학교는 진리·자유·사랑으로 충만한 학교 공동체, 더 나아가 사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28)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제삼천년기의 문턱에 서 있는 가톨릭학교』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77), 11항.

29) <http://info.catholic.or.kr/dictionary/view.asp?ctxIdNum=4826&keyword=복음화&gubun=03&gubun=03> (2017. 06.14)

30) 『가톨릭학교에 관한 지침』, 8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4항 참조.

31) 『학교 종교교육에 관하여 주교회의 의장들에게 보내는 회람』, 9항.

32) 『가톨릭학교에 관한 지침』, 85항.

서 모든 학생들에게 인간의 존엄성, 생명, 환경, 평화, 다문화·다종교, 사회적 약자 보호, 정의실현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가톨릭학교의 복음화 교육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종교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복음화의 의미를 깨닫도록 하는 실천 방안으로서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라고 본다. 종교교육은 모든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종교적 심성에 관심을 갖고 이를 체현해 나가는 교육인 것이다.³³⁾

『가톨릭학교에 관한 지침』에서도 “완전한 교육은 필연적으로 종교적 영역을 내포하고, 종교는 인격의 다른 측면들의 발전에 매우 효과적으로 기여를 하기 마련이며, 이런 점에서 전인교육에 통합되는 것이다.”³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종교교육이 다른 형태의 교육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종교교육이 단지 종교진리에 대한 지적 동의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그리스도의 인격에 자신의 전존재를 귀의시키는 것에 목적을 둔다는 사실이다.”³⁵⁾ 라고 하며 학교 교육이념으로서의 종교교육의 의미를 언급하고 있다. 이는 종교교육은 무엇보다도 종교의 진리를 가르쳐서 그리스도를 닮은 전인적 인격형성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의미가 된다.

가톨릭학교 종교교육은 학생들에게 그리스도교의 정체성과 생활에 대한 지식을 전수하여 이성의 영역을 넓혀 진리와 선에 문을 열게 하고, 각기 고유한 학문의 상호 연관성을 깨닫도록 이끌어 주는 데 그 핵심이 있다.³⁶⁾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 종교교육은 다른 학문 분야의 부속물이 아니며 오히려 학제 간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력을 요구한다. 그리고 학제 간 대화의 목적은 학생들의 인격 형성에 두어야 한다. 이렇게 제시되는 그리스도교 메시지는 세상의 기원, 역사의식, 윤리적 가치의 토대, 다양한 문화 안에서의 종교의 기능, 인간의 운명, 인간과 자연 등을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³⁷⁾

가톨릭 교육현장에서 “종교교육은 그리스도의 가치교육, 개인에 맞는 종교교육, 타종교의 이해에 관한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학생의 배경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교조적인 강제와 주입을 지양하고, 다른 종교나 신앙에 대한 차이와 개방성 유지”³⁸⁾를 강조한다. 종교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내면화해야 가치는 타인의 인격과 문화 존중, 생명 존중, 자연 환경 존중, 평화와 정의 추구, 양심적 책임감 형성, 진정한 진리 추구, 평화로운 비

33) 최준규, 앞의 글, 313쪽.

34) 『가톨릭학교에 관한 지침』, 19항.

35) 같은 글, 50항.

36) 『학교 종교교육에 관하여 주교회의의장들에게 보내는 회람』, 17항.

37) 원종철, 「가톨릭 교육과 인간」 『가톨릭교육과 인간』(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1), 38-39쪽.

38) 종교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가톨릭 교회는 다양한 문화가 가져다주는 풍요를 즐기면서도 동시에 개개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과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느냐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와 관련하여 가톨릭 교회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는데, 그것은 다양한 종교 간의 대화가 결코 타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종교 간의 “참다운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그것이 명확하여야 하며 상대주의와 혼합주의를 피해야 하고, 동시에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과, 화해와 형제애의 정신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가톨릭학교의 문화 간 대화 교육: 사랑의 문명을 위한 조화로운 삶』, 15항)

관정신 형성, 세계평화를 위한 연대, 타인에 대한 봉사정신 형성 등이다. 또한 다양한 내용과 방식으로 학생 스스로 자신의 삶을 깊이 있게 비판적으로 성찰 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하고, 복음 정신에 근거한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2>와 같다.

<표 2> 가톨릭학교 종교교육의 성격과 범위 요약

구 분	내 용
성 격	그리스도교의 정체성과 생활에 대한 지식을 전수하여 이성의 영역을 넓혀 진리와 선에 문을 열게 하고, 각기 고유한 학문의 상호 연관성을 깨닫도록 이끌어 주는 교육 『학교 종교교육에 관하여 주교회의 의장들에게 보내는 회람』
목 적	복음화를 통한 전인적 인격완성 『한국가톨릭교육헌장』
교육 가치	인간 존엄성에 대한 교육, 그리스도인 성숙, 생명존중, 인간존중, 정의와 평화, 봉사, 문화적 포용, 종교적 관용, 환경보전, 도덕적 가치, 복음정신의 구현 『가톨릭학교에 관한 지침』
대 상	가톨릭 신자, 비신자, 타종교 『그리스도인 교육』, 『가톨릭학교에 관한 지침』
교육 과정 운영의 특징	문화 간 대화, 상대방에 대한 존중, 타종교로부터 배움, 상대주의와 혼합주의를 피함 『가톨릭학교의 문화 간 대화교육: 사랑의 문명을 위한 조화로운 삶』

2) 교육과정 운영에서 고려 사항

가톨릭학교 종교교육과정 운영에서 경계해야 하는 것은 종교교육을 다른 학과에 부수적인 것으로 여기거나 호교론을 전개하는 유용한 수단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한국 가톨릭학교 교육 지침서』에서 제안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³⁹⁾

첫째, 종교교육에서는 실천과 활동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종교교육이 종교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이 수업 활동에 참여하고, 영적 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마음과 정신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학교 안의 성당을 개방하는 것, 복음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명상의 시간을 갖거나 아침 기도 시간을 통해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갖고 깊이 성찰하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둘째, 학교의 전체 교육적 행위와 환경 안에 스며있는 종교교육을 고려한다. 종교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종교, 철학, 인성 등 선택과목에 한정되어서는 안 되며, 학교의 모든 교육적 행위와 환경 속에 스며들어야 한다.

39)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의 교육위원회, 『한국 가톨릭학교 교육 지침서』 (서울: 가톨릭문화원, 2009), 46-53쪽.

셋째, 학생이 갖고 있는 다양한 교육 환경을 배려한 교육을 고려한다. 종교교육은 학생의 교육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시할 때 효과를 낼 수 있다. 학생들을 둘러싸고 있는 각종 시험, 사교육, 세대 간 갈등, 가족 대화 부재, 육체적 심리적 폭력, 외모지상주의, 무분별한 미디어, 집단 따돌림, 취업 문제 등이 교육프로그램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동기 유발을 바탕으로 하는 종교교육이어야 한다. 종교교육은 전례모임, 대화와 만남, 피정, 영적 독서, 성화감상, 종교영화 감상, 성지순례,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에 참여할 동기가 학생들에게 일어나지 않을 때 그것은 무의미하고 무기력한 활동으로 남겨질 뿐이다. 종교교육활동이 학생들에게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활동에 필요한 내적 동기를 키워야 한다.

다섯째, 타종교에 대한 존중의 교육이어야 한다. 비가톨릭 학생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다가서는 자세는 존중의 자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적 환대와 대화하려는 개방되고 보편적인 자세여야 한다.

Ⅲ. 연구결과

1. 가톨릭고등학교 종교교사들은 종교교육을 어떻게 인식하고 실천하는가?

1) 종교적 심성을 일깨우는 교육

교사들이 인식한 종교교육은 학생들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종교적 심성을 일깨워 주고 종교적 심성을 불어 넣어 올바른 심성과 가치관을 갖춘 학생들을 길러내는 것이다.

종교학은 신자이든, 비신자이든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종교성(믿음, 희망, 사랑 등)을 발견하게 해주어 진정한 행복을 찾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2)

종교교육의 성격은 인간 안에 내재된 종교심성 즉 영성을 일깨우는 과정이며 그 영성을 살고 실천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교사5)

2) 가톨릭의 전통과 장점이 구현되는 교육

교사가 인식한 종교교육은 가톨릭의 전통인 보편성을 살린 교육으로 이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가치교육, 자기성찰, 인간존중, 이웃사랑 등의 덕목을 배우고 익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내적 성장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 세상과 이웃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것이다.

가톨릭 복음화를 위해 가톨릭만의 전통과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종교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양한 종교를 가진 학생들과 학업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사는 학생들에게 가톨릭의 인생관, 가치관을 심어주는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기성찰을 통해 참 자아를 찾고, 그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도록 돕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이웃에 대한 배려와 이해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사5)

3) 종교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기르고 참 종교를 식별하는 교육

교사가 인식한 종교교육은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교육이다. 교사들은 종교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멀리하고 무조건적인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은 종교적이지 않다고 말하며, 종교교육은 비판적 사고를 통하여 참 종교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교육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종교의 기본 조건과 의미, 종교의 기원, 역사, 핵심적인 교리, 현대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종교를 익히고 비판적인 사고를 기르며 종교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사이비종교와 참된 종교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교사5)

4) 종교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교육

교사들은 종교교육에서 종교에 대한 선입견이나 종파적 사고에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학생들에게 타 종교인을 존중하도록 하는 자발적 교육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종교에 대한 이해, 서로 다른 종교를 이해하고 잘 알 수 있게끔 이끌어 주는 것. 가톨릭 교리나, 개신교 교리, 불교 교리를 가르치는 종파 교육이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종교에 대한 이해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사1)

수업에서는 그리스도교, 불교, 이슬람, 이슬람, 힌두교, 무교 등 현대 사회에서의 전반적인 종교의 역할을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사4)

종교학 교육이라고도 생각하는 이유는 다양한 종교발표 수업을 통해 포괄적인 종교로 접근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교사5)

5) 인성교육

교사들이 인식한 종교교육은 인성교육인데, 전통적으로 종교교육은 인성교육이라 말할 수 있고, 종교교육 안에서의 인성교육은 선교나 교리교육 차원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이라는 것이다. 종교교육은 인성교육에 이바지하고 지식을 삶의 지혜로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내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 인성교육프로그램으로 학

교마다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꼭 가톨릭이라는 종교를 가르치는 교육에서 가톨릭 신자를 만들어서 아니면 그런 식의 어떤 교육을 하면 가톨릭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좋은 그러니까 훌륭한 품성을 지닌 학생을 만들어 내고 그런 교육 분위기가 될 수 있는 학교이면 되지 않느냐가 저의 생각입니다. 7대 종단에서 시작된 담게 살겠습니다 라는 운동을 학교에 맞게 재구성을 해서 크게 학생, 교사, 학부모 세부사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톨릭학교 하면 전인교육, 인성 교육을 많이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늘 학생들의 전인교육 프로그램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교사1)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전인적인 성장을 통하여 보다 성숙한 삶의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당당하면서도 책임감 있게 삶을 살도록 이끌어 줍니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자아의식(자신과의 만남), 친교의식(이웃과의 만남), 생명의식(자연과의 만남), 존재의식(사물과의 만남), 역사의식(시대와 사건과의 만남)입니다. (교사2)

인성교육프로그램으로 아침명상시간, 아성인(아름다운 ○○인 인성향상 프로그램), 1학년 전체 대상으로 나·너·우리 인성함양 프로그램 등을 하고 있어요. (교사3)

거의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찾음, 키움, 펼침, 나눔의 4단계의 프로그램으로 제가 중점을 두고 있는 단계는 키움단계입니다. 키움에는 지(知), 감(感), 행(行)으로 나누어는데, 감(感)의 내용으로는 자율 특색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제카드쓰기, 부활달걀, 수능54일기도가 있고요, 생명존중교육 그러니까 입양교육이라던가 장애이해교육과 생명윤리교육이 있어요. 그 외에 행복수업, 다도예절, 세계종교문화이해가 있어요. 특별히 ○○플러너에서 감사노트를 쓰고 있어요. (교사4)

6) 비교과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종교교육

종교교육을 가톨릭학교의 정체성 구현에 가장 밀접한 교육과정이라고 할 때 그것은 비교과 활동뿐만 아니라 교과교육과정과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면담에 참여한 모든 교사들은 비교과 활동을 통해 주로 종교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톨릭 교회가 말하는 종교교육과는 간격이 있지만 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2015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따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학교 행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옆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요? 하는 생각입니다. 공동체미사, 부활절행사, 성모의 밤 가톨릭전례에 따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입학 때는 가톨릭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졸업 후 신자가 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신자가 되길 원하는 학생은 수녀님과 교리를 합니다. (교사1)

매주 주일 미사와 1년에 4~5번 정도의 전례미사, 예비신학생 모임, 예비자교리, 부활/성탄 관공성사, 그리고 매주 화요일 평일미사와 매주 수요일 학급미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2)

입학미사, 성모의 밤, 빛의 예절 등 종교행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비신자학생들이 세례를 받기를 원하면 제가 교리교육을 하고 있구요.(교사3)

종교행사로는 입학, 졸업, 수능, 성탄, 성모의 밤이 있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거의 다 참석하고 거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신자가 되기를 원하는 학생은 제가 교리를 합니다. (교사4)

전체 학생 대상으로 특별미사(신입생 환영, 성모의 밤, 개교기념, 수학여행기원, 수능격려, 졸업)가 있고, 목요일 월례미사가 한 달에 두 번 신자 대상으로 있습니다. 그 외는 전례에 따라 5월, 10월 목주기도, 3월 십자가의 길, 수능 54일기도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신자가 되기를 원하는 학생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교교육은 생활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사5)

7) 교사의 삶을 통한 종교교육

교사들이 인식한 종교교육은 교사 자신을 통한 종교교육이다. 연구에 참여한 종교교사는 모두 성직자와 수도자이다. 따라서 이들은 수업이나 비교과 활동과 같은 의도적인 교육활동 뿐 아니라 자신들의 태도나 삶을 통해서도 종교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저는 신부이면서 교사이고 또 담임을 하고 있고, 동아리, 밴드부 지도 등을 하고 있어서, 아이들 하고 친구같이 지내고, 아이들도 편하게 생각 하는 것 같습니다. (교사1)

우선 저의 삶 자체가 학생들에게 보여 지는 종교교육이기 때문에 늘 친절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틈틈이 학생들과 함께 운동을 하며 친교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학생들이 저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종교교실에 오는 것을 한 주의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저에게 관심을 갖게 되니 자연스럽게 가톨릭 생활이나 교리에 대해 먼저 물어오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사2)

2. 가톨릭고등학교 종교교육 실천에서 교사들이 고려하는 주요사항은 무엇인가?

가톨릭학교는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종교교육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톨릭 신자가 아닌 현실에서 교육하고 있으며 따라서 서로 다른 종교 간 만남이라는 주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종교교육과정을 실천하면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즉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현실 상황 안에서 가톨릭학교는 학생들이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더불어 사는 문화를 배우는 것을 강조하며 교육과정에서 이를 실천한다고 응답하였다.

우리 학교의 다문화가정 학생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5년 아니면 10년 이후에는 다양한 문화를 가진 학생들과 함께 공부할 수도 있죠. 수업 중 다문화사회에 대한 언급은 자주 하고 있어요. 우선 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문화를 알아야 하니까요. 다문화사회에 대한 예를 들고, 그런 것을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로 종교를 이야기 하고 있어요. 유럽권이나 미국권에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예들이 많이 나오고, 특히 이슬람에 대한 국제적 갈등 문제들을 보면 종교나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서 온다는 것은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다양성과 차이에 대해 배려하고 소통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 합니다. (교사1)

사실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문화·다종교에 대한 언급은 수업시간에 하고 있고, 소수자에 대한 인권 교육도 하고 있어요. 특히 저희 학교는 장애인 학생과 일반 학생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들의 생활이 복음적이에요. 서로 도와주고 배려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종교교육을 하지 않아도 생활 안에서 스스로 배우는 것 같아요. (교사3)

2) 타종교에 대한 존중

종교교사들은 교육과정 운영에서 가장 염두에 두는 것으로서 비가톨릭 학생들의 종교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가톨릭 교육자가 비가톨릭 학생들을 만날 때 그들을 대하는 자세는 존중의 자세만이 아니라 환영하고 대화하려는 개방된·보편적인 그리스도교적 사랑이 동기가 되어 있는 자세라고 말하면서 이를 수업에서 반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타종교에 대한 존중에 특별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종교 사회에서의 존중을 위해 개신교 신자 학생들을 위한 기도모임 장소도 있습니다. (교사2)

현재 다문화가정 학생은 전체 9명 있어요. 다종교 시대에 서로의 종교에 대한 다양성과 차이에 대해 가르치고 있고, 무엇보다도 존중하는 자세를 기르도록 수업시간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교사4)

첫 시간에는 가톨릭학교라는 것을 명시해줍니다. 가톨릭의 이념과 가치관을 알려주고 종교활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주지해줍니다. 하느님을 최고의 진·선·미이신 분으로 이해하도록 돕고 가톨릭의 보편 가치들을 알려주면 학생들은 반발하지 않고 믿고 따라옵니다. 다만, 종교가 다른 학생들이 교리에 대한 질문을 하면, 잘 받아주고 답변해 주어야 하겠지요. (교사5)

3. 가톨릭고등학교 종교교사들이 종교교육 실천에서 경험하는 갈등은 무엇인가?

1) 종교에 대한 교사들과의 인식 차이

종교교육이 가톨릭학교의 정체성 구현과 관련한 의미 있는 교과이지만 종교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체 학교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 교과를 담당하는 대부분의 교사들은 종교교육은 종교담당 교사만의 과업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런 상황은 종교담당 교사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진다.

교사들의 인식과 종교교사의 인식이 달라서 의견차가 있습니다. 종교행사는 종교 담당 교사의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행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종교라는 단어, 피정, 성지순례 등 기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너무 완화시켜 종교를 인성으로 인식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사5)

수업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수업이외의 모든 종교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데, 일반 교사들이 그 행사에 대해 종교교사만큼 적극적이지 않고 그것은 종교 담당 교사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 안에서의 어려움이 있어요. (교사3)

학교 수업과 모든 종교행사를 위한 준비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어요. 종교행사는 종교교사의 일이에요. (교사4)

2) 종교교육 실제와 가톨릭 교육 이념 구현 간의 간극

종교교사들은 교과 영역인 수업에서 가톨릭 교육 이념을 자연스럽게 담아내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응답하였다. 수업에서 교육이념을 구현하는 과정은 종교교사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자칫 종교의 가르침과 전통을 고수하는 교리교육을 하는 종교의 교육으로 학생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염려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학교 교육자체가 공적인 교육이어서 수업은 교육과정에 따르지만 가르치면서 그 속에서 가톨릭 교육의 이념을 나타내야 하는데서 갈등이 있어요. (교사4)

3) 교회의 지원과 관심 부족

교사는 학교 사목에 대한 교회의 관심 부족을 어려움으로 응답하였다. 교회 문헌에서 제시된 바와 달리 가톨릭학교 종교교육에 대한 교회의 지원은 적극적이지 않다. 이는 교회가 가톨릭학교 보다는 본당 중심의 청소년 사목에 우선순위를 두는 한국 교회의 현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수업은 종교학으로 하고 있어 수업에 대한 갈등을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 사목 자체가 특수 사목으로 분리되어 있어 교회 자체에서 관심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학교사목에서의 어려움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사1)

4) 입시 중심 교육문화에서 종교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가톨릭학교는 종교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입시중심의 교육문화 하에서 종교교육 시간을 학교의 다른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 현실이다. 이에 교사는 종교활동 보장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고 응답하였다.

도전적 과제는 종교수업 시수가 줄어들고, 종교 활동 시간에 여러 가지 전체 학생 대상 강의가 잡힌다는 것입니다. 종교 활동은 가톨릭학교의 고유한 시간이며, 그 시간만큼은 학생들의 종교 활동이 보장되어야 하나,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학교폭력, 성폭력, 장애인교육 등 강의식 교육이 의무화 되어있어 종교 활동 시간을 강의 시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절대 양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신자와 예비신자는 이 시간에 종교 활동을 하도록 보장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사5)

5) 교재 활용의 어려움

종교교육은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의 토의와 토론, 영상 활용 등 일반 교과수업 보다 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입시와 무관한 과목으로써 성적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은 수업 중 다양한 교육 자료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현재는 활용할 수 있는 교재가 빈약하여 교사들이 교육 자료를 수집하고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종교교육에 준하는 철학 과목 안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철학은 교양과목으로 되어 있고, 시험을 보는 과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재가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너무 가톨릭적인 입장에서 이야기 하고 있고 그것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은 교재를 참고로 자유롭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1)

종교교재는 사용하지 않고 수업방식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은 종교 관련 영화를 보고, 학생들과 함께 토론하고 그 안에 나타난 상징적인 종교의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사2)

실제로 교양과목이라는 것은 시험이 없는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교과를 운영하고 있어요. 교재 사용은 안하고 있고, 제가 필요한 것으로 교안을 만들어 쓰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교사3)

다양한 종교교재가 있지만, 교재를 사용하지 않고 제가 수업운영에 맞게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가톨릭과 사회적인 이슈를 통합할 수 있는 교재가 없어 어려움이 있어요. (교사4)

현재 나와 있는 교재가 시대를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아이들 감각도 잘 읽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과 인성 및 여러 인성교육자료를 통합해 새로운 교재를 저 개인적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한계와 어려움이 있어요. (교사5)

6) 갈등 해결 방안

본 연구는 종교교사들이 종교교육 운영에서 갈등을 겪고 있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하였다. 하지만 연구 결과 종교교육과정 운영에서 특별하게 여기는 갈등적 요소가 없다는 응답도 있었다. 그러면서 보다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 역할을 어떻게 충실히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라고 답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한 경우 뿐 아니라 배정에 의해 입학하는 학교의 교사도 역할의 갈등적 요소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국가 교육과정을 충실히 적용함으로써 가톨릭학교가 종교교육과 관련한 부정적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특별한 갈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있는 교육은 종교교육입니다. 학생들은 저를 종교학자로 인식하기보다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가톨릭 성직자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수업 외에 미사와 성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부분이 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수업을 할 때도 되도록 학생들에게 종교지식보다는 영성을 다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사2)

이에 따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특별히 강구할 필요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일반적으로 교사의 학습공동체가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교육과정 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종교교사들은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응답자들은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그 문제를 개별적으로 해결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건이 되면 종교교사들의 학습공동체 활동을 하고 싶다는 요구는 있었다.

교사 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사1)

종교교사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사2)

다른 종교교사 교육은 가지 않아요. 이유는 가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서요. 지금은 수녀님들과의 교육철학 모임이 도움이 많이 되고 있죠. (교사3)

교사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요. (교사4)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 자체가 없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종교교사들이 개인의 장점을 살려 잘하는 부분에 대해 연구하여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나누는 모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사5)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종교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을 통해 가톨릭고등학교 종교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실천 그리고 갈등에 대해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종교교사가 인식하는 종교교육의 의미를 도출해 내고, 가톨릭학교 종교교사 지원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첫째, 종교교사들은 종교교육을 종교적 심성을 일깨우는 교육, 가톨릭의 전통과 장점이 구현되는 교육, 종교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기르고 참 종교를 식별하는 교육, 종교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교육, 인성교육, 비교과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교사의 삶을 통한 교육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종교교육은 계획된 종교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교사들은 교과 과정에서는 국가수준의 종교학 수업을 하고, 비교과 과정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가톨릭학교의 이념과 정체성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종교교사들은 종교교육에 대한 두 가지 역할 기대를 모두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는 그들에게 주어진 부가적 과제 즉 국가 교육과정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종교교육으로 인해 가톨릭학교가 부정적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종교교사들로 하여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연결된다. 교과영역에서는 수행할 수 없는 종교적 활동을 비교과영역에서 수행해야 하고 이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반 교과 교사들의 협조를 얻어내기도 쉽지 않다면 종교교사의 업무 부담은 과중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둘째, 종교교사들이 종교교육 실천에서 역점을 두는 사항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타종교에 대한 존중이다. 이는 2015년 교육과정안의 종교학 교육과정과, 가톨릭 문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많은 부분 일맥상통 한다. 하지만 일반사회와는 달리 가톨릭 고등학교에서는 아직까지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문화사회에 대한 종교교육이 체계적이지 않고, 준비단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따라서 종교교육에서 학생들에게 다양성과 차이에 대해 배려하고 소통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교회문헌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문화 간 분야에서 감수성과 인식과 역량을 키우는데 통합, 상호작용, 타인을 인정하기의 세 가지 기본 방향에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⁴⁰⁾

셋째, 종교교사들이 종교교육에서 당면하고 있는 갈등은 종교교육에 대한 다른 교사들과의 인식차이, 종교교육과 가톨릭 교육이념 구현간의 간극, 종교교육에 대한 제도적 관심과 지원 부족, 입시중심교육문화에서 종교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교재활용의 어려움이다. 선택에 의해 학생들이 입학하는 학교의 종교교사들은 수업에서의 갈등보다는 수업이 외의 종교 활동에서 더 큰 역할 갈등과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한편 종교교사들은 종교교육에서 제기되는 어려움과 갈등을 개별적인 방식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가톨릭학교 종교교사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이 년 1회 개최되고 있으며, 이 때 교사들은 수업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과 자료 공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갖는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교사들의 학습 공동체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가 5개 학교의 종교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전체 가톨릭학교에 적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톨릭고등학교 현장에 초점을 둔 실증적 분석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교과 현황에 대한 종교교사들의 구체적인 응답을 토대로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40) 『가톨릭학교의 문화 간 대화 교육: 사랑의 문명을 위한 조화로운 삶』, 76-78항.

본 연구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후속 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종교교육 과목에 대한 교사들의 면담연구로 그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로는 종교교사들 뿐만 아니라 일반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양적연구와 병행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종교교사들은 자신이 이해한 종교교육의 유형(종교학, 종교적 교육, 종교의 교육)에 따라 종교교육의 인식의 차이가 있기에, 후속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이해한 종교교육의 유형별로 종교교사들의 인식을 연구하면 더 깊은 연구가 될 것이다. 셋째, 다문화시대의 종교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문화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에 대한 감수성과 인식 역량을 키우고,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한 교수방법과 교육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가톨릭학교들은 종교교사들의 학습공동체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그들이 어려움으로 제기하고 있는 종교교재 미흡의 문제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적절한 지원이 있다면 종교교사야 말로 관련 분야의 학자들과 공동으로 종교교재를 집필할 수 있는 최적의 종교교육 전문가라고 보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교황청 가톨릭 교육성. 『학교 내의 가톨릭 평신도: 신앙의 증인들』.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2.
- _____. 『가톨릭학교에 관한 지침』.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7.
- _____. 『학교 종교교육에 관하여 주교회의의장들에게 보내는 회람』.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9.
- _____. 『가톨릭학교의 문화 간 대화 교육: 사랑의 문명을 위한 조화로운 삶』.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3.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 _____. 『그리스도인 교육에 관한 선언』.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2.
-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교육위원회. 『한국 가톨릭학교교육 지침서』. 서울: 가톨릭문화원. 2009.
- _____. 『한국 가톨릭학교 교육 헌장』.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0.
- 고병철. 「국가 교육과정(종교학)의 개념 흐름과 2015 종교학 교육과정」 『종교교육학연구』제 51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6).
- _____. 「한국종교교육의 정황과 방향: 중립고등학교의 경우를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제21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5).
- 교육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 19]. 2015.
- 구본만. 「가톨릭학교 전인교육 사명에 대한 고찰」 『가톨릭철학』제17호 (서울: 한국가톨릭철학회. 2011).
- _____. 「가톨릭학교에 관한 지침에 나타난 가톨릭 학교 사명의 실천적 구현」 『가톨릭신학』제15호 (서울: 한국가톨릭신학학회. 2009).
- 김경이. 「다문화사회와 가톨릭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제36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1).
- _____. 「학교종교수업,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송순재 엮음. 『왜 기독교학교인가?』. 서울: 기독한교. 2014.
- _____. 『함께하는 가톨릭학교 종교교육』. 서울: 가톨릭학교교육포럼. 2005.
- 김선아. 「종교교과를 위한 새로운 교수·학습 설계 모형 탐구」 『기독교교육정보』 제24호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2009).
-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I』.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6.
- 김을옥·김경이. 「가톨릭학교 종교교육현황 조사」 『사목』제318호 (서울: 천주교중앙협의회. 2005).
- 성기선. 「제7차 교육과정과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제13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 손원영. 「영국에서의 학교 종교교육에 대한 연구」 『기독교교육정보』제14집 (서울: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2006).
- 안병초. 「가톨릭학교 운영의 현황과 문제 및 미래전망」 『사목』제 223호 (서울: 천주교중앙협의회. 1997).

- _____. 「가톨릭학교의 가톨릭적 정체성」 『사목』제260호 (서울: 천주교중앙협의회, 2005).
- 양은용. 「종교교사의 자질과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제27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8).
- 원종철. 「가톨릭 교육과 인간」 『가톨릭교육과 인간』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1.
- 이용훈. 「다종교 상황에서 가톨릭학교의 종교교육」 『사목』제318호 (서울: 천주교중앙협의회, 2005).
- 조영관. 「2015 개정 종교학 교육과정과 가톨릭 중등학교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제51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6).
- 최영희. 「종립학교, 종교교육의 방향(종교교재의 분석과 평가)」 『종교교육학연구』제32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6).
- 최준규. 「가톨릭학교의 종교교육: 쟁점, 개념, 목적, 방법」 『종교교육학연구』 제21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5).
- 토마스 그룹. Will There Be Faith?: A new vision for educating and growing disciples. 조영관 · 김경이 · 임숙희 옮김. 『신앙은 지속될 수 있을까?』. 서울: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4.

원고접수일: 2017년 6월 15일 심사일: 2017년 7월 16일 게재확정일: 2017년 7월 22일

연구자소개: 이미선

① 전공 : 교육학 / 소속: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② 관심영역: 교육학, 교육철학

③ E-mail: fmsbosco@gmail.com

연구자소개: 김경이

① 전공: 교육학 / 소속: 가톨릭대학교

② 관심영역: 가톨릭학교교육, 종교교육, 교사교육, 교육프로그램 개발

③ 주요논저: 『가톨릭신앙공동체 성인종교교육의 실천적 교육모형』, 『다문화사회와 가톨릭의 종교교육』, 『양극화 현상 극복을 위한 가톨릭교육의 역할』

④ E-mail: clara90@catholic.ac.kr

Abstract

**Teachers Perception and Practice About a Religious
Education In Catholic High School**

Mi-Sun Lee · Kyung-Yee Kim

Ewha Womans University ·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Missions and aims of school education are realized by curriculum. Specially, the religious education in Catholic high school is characterized the identity realization. However, a feature of religious studies, in the 2015 curriculum, is the study of religion and is aimed to understand various religious cultures in multi-religious society.

The aims of this study are investigating about how a religion education is dealt with dual roles which are religious education and religion education in Catholic high school and also how religion teachers have difficulty in the curriculum. Every school has only one religious teacher, which the result of study can be used to support religious teachers.

The issues are : First, how do religious teacher in Catholic high school understand and practice in the religious education? Second, what are the teachers special considerations on the religious education practice in Catholic high school? Third, what do teachers have conflict in religious education practice?

This study includes the analysis of various research and interview with teachers in Catholic high school. The results are : First, the religious education is to aid growth of the religiosity, to practise Catholic tradition and advantage, to improve a critical thinking about religion and discern true religion, to understand religion in general, character education, to teach religious activities in non-subject areas and teaching with teachers life it self. Second, the religious education practice in Catholic high school is to respect cultural variety and neighbor religion. Third, the teachers conflict is a lack of understanding about the religion education at school, a gap between religion education practice and Catholic education, a lack of support and interest by church, a lack of

religion education necessity and insufficient textbook. Most teachers have tried to solve these problems and challenge by themselves, also respond necessity of learning community activities.

Key words: Catholic schooling, Catholic religious education, 2015 religious curriculum, perception of religious education, practice of religious education